

‘코리아둘레길×동서트레일’로 대한민국 가을을 걸으세요

- 10. 1. 충남 태안에서 ‘2026 걷기여행주간(10. 1.~11.)’ 선포식 개최
- 걷기·문화·웰니스·지역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관광공사)는 산림청(청장 박은식)과 함께 10월 1일, 태안해양치유센터에서 ‘2026 코리아둘레길×동서트레일 걷기여행주간’ 선포식을 개최하고, 가을 걷기여행의 시작을 알린다.

문체부 ‘코리아둘레길’과 산림청 ‘동서트레일’이 만나는 태안에서 ‘걷기여행주간’ 선포, 9. 9.~20. 걷기여행 매력 직접 체험할 선포식 참가자 신청 접수

이번 선포식은 코리아둘레길 서해랑길 65코스와 동서트레일 2구간이 만나는 태안 몽산포 해변 일원에서 열린다. 문체부와 산림청, 관광공사, 지방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이 두 걷기여행길의 협력과 걷기여행 확산을 위한 선포행사에 함께한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접경지역을 잇는 약 4,500km의 대한민국 대표 걷기여행길이다. 문체부가 ’16년부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조성, ’24년에 전 구간 개통을 완료했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약 850km의 숲길이다. 산림청이 ’23년부터 조성, ’27년 하반기에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선포식 참가 신청은 9월 9일부터 20일까지 걷기여행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와 공식 누리집(durunubi.kr)에서 선착순(500명)으로 받는다. 참가자들은 선포행사 이후 태안해양치유센터에서 몽산포해수욕장까지 약 3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걷기여행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며, 완주자는 완보 메달을 받는다. 행사 세부 일정도 ‘두루누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걷기 전후에도 즐길 거리 풍성, 태안에서 ‘걷고, 쉬고, 치유하는’ 여행 제공

선포식에서는 걷기여행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에 대한 유공포상도 한다. 걷기 구간에서는 거리 공연을 보며 걷기와 휴식, 문화가 어우러진 여행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서해안의 아름다운 일몰도 감상할 수 있다. 걷기 후에는 ‘걷고, 쉬고, 치유하는’ 웰니스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걷기행사 참가 신청 시 예약을 통해 태안해양치유센터의 요가와 싱잉볼 사운드테라피 웰니스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각 체험행사는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오후 5시부터 30분 간격으로 2회씩 운영되며, 회차별 30명씩 총 120명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웰니스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정사가 24,000원에서 할인된 10,000원이다.

‘걷기여행주간’, 다양한 행사로 걷기 입문자와 애호가 모두에게 재미 선사

선포식 이후에도 ‘걷기여행주간’인 10월 11일까지 전국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코리아둘레길’ 대표 코스의 풍경을 보고 코스를 맞추는 온라인 이벤트 ‘찾아라! 코돌 명탐정’과 ▲두루누비 응용프로그램(앱)의 ‘따라가기’ 기능으로 걷기 기록을 남기고 경품에도 응모할 수 있는 ‘코돌 스탬프 챌린지’ 등을 진행한다.

또한 걷기여행을 지역 방문과 소비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더해 지역 상권에 온기를 전한다. 10월 3일에서 5일, 9일에서 11일까지 총 6일간 코리아둘레길 지정 코스를 완보한 참가자에게 인근 지역 카페에서 커피를 제공하는 ‘걷고 커피 한 잔’ 행사를 운영한다. 전국 코리아둘레길 쉼터에서는 ▲부산 남구의 ‘오륙도 안전걷기로드’, ▲울산 동구의 ‘해파랑쉼터 체험’, ▲경남 고성 ‘자연인로드’ 등 걷기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해 걷는 재미를 더한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비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걷기여행이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코리아둘레길’과 ‘동서트레일’은 걸으면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걷기여행의 대표길”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 코리아둘레길의 다양한 구간에서 국민들이 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해 걷기여행이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조영희 산림복지국장은 “‘코리아둘레길’과 ‘동서트레일’이 만나는 태안에서 걷기여행주간을 시작을 함께 알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국민들이 ‘동서트레일’을 비롯한 숲길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걷기여행이 지역을 찾고 머무르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2026 걷기여행주간’ 포스터

2. 2026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 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명호 (044-203-2861)
		담당자	사무관	박지원 (044-203-2860)
담당 부서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	책임자	팀장	조경은 (042-481-1812)
		담당자	주무관	송영호 (042-481-4122)
담당 부서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기획팀	책임자	팀장	김광식 (033-738-3541)
		담당자	차장	윤혜정 (033-738-3547)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한국관광공사



태안

걷기여행주간 선포식 in 태안

국민이 함께 즐기는 코리아둘레길 X 동서트레일

걷기부터 버스킹, 다채로운 프로그램까지
가을의 즐거움이 한자리에!



| 일시 | 2026년 10월 1일 (목) 15:00~18:00

| 장소 | 서해랑길 65코스 및 동서트레일 2구간, 태안해양치유센터



※ 전체 40개 프로그램 상세 내용은 ‘두루누리’ 누리집 참조

1. 걷기여행주간 프로그램(기간 한정)

지역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진행일정
부산 남구	오륙도 안전걷기로드	쉼터 거점 안전교육, 테이핑, 스트레칭 및 걷기 후 자가회복 프로그램	10. 3.(토)
울산 동구	해파랑쉼터 체험 프로그램	해파랑 쉼터를 지역 관광 거점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	10. 4.(일), 10. 11.(일)
강원 강릉	기차타고 즐기는 해파랑길	기차타고 이동하며 푸른 동해안의 해파랑길 노선을 즐기는 프로그램	10. 10.(토)~ 10. 11.(일)
전남 순천	2026 순천 남파랑 씨워킹	문화관광해설사와 남파랑길 61, 62코스 걷기	10. 10.(토)
전북 부안	서해랑, 쉼(休) 해랑 부안 서해랑길 걷기여행	워크투스: 서해랑길 44코스 (줄포만 위케이션 센터) 정원 야외 요가 및 로컬 체험	10. 3.(토)

2. 걷기여행주간 프로그램(상시)

지역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진행일정
울산 동구	해파랑길 완주인증배지 프로그램	울산 동구 1코스 자율 걷기 후 쉼터에서 두루누리 인증 시 배지 증정	상시 (5~11월)
울산 동구	해파랑길 인증챌린지	걷기프로그램 참여+쉼터방문+숙박인증 시 기념품 제공	상시 (5~11월)
강원 강릉	코스완주미션투어	해파랑길 강릉구간 완주 미션 투어(개별/6개코스) 및 SNS 인증 이벤트	상시
경북 영덕	블루로드 길동무 프로그램	블루로드 1코스~8코스 길동무 프로그램	상시 6. 5.(금)~ 12. 6.(일)
경북 영덕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 협업	블랙야크 자사앱(BAC)을 통한 해파랑길(블루로드) 완주 프로그램 인증	상시 (9~12월)
경남 통영	미션 클리어! 통영 남파랑길 완주	통영의 남파랑길 중 1개 코스 이상을 완주하는 인증형 프로그램	상시
충남 홍성	홍성의 길과 길	서해랑길 63코스와 홍성 관내의 길 걷기 완주자 대상 서해랑길 63코스 굿즈 증정	상시
충남 태안	태안 서해랑길 스탬프 투어	서해랑길 전체(11코스) 스탬프 완주(날인) 시 기념품 제공	상시